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⑪

定慧名義雖殊 要在當人 信心不退
정혜명의수수 요재당인 신심불퇴
剋己成辦耳 智度論云 若求世間近事
극기성판이 지도론운 약구세간근사
不能專精 事業不成 況學無上菩提
불능전정 사업불성 황학무상보리
不用禪定 偈云 禪定金剛鎧
불용선정 게운 선정금강개
能遮煩惱 禪爲守智藏 功德之福田
능차번뇌 선위수지장 공덕지복전
罥塵蔽天日 大雨能淹之 覺觀風散心
효진폐천일 대우능엄지 각관풍산지
禪定能滅之 大集經云 與禪相應者
선정능멸지 대집경운 여선상응자
是我眞子 偈云 閑靜無爲佛境界
시아진자 게운 한정무위불경계
於彼能得
어피능득
淨普提 若有毁謗住禪者
정보리 약유훼방주선자
是名毁謗諸如來 正法念經云
시명훼방제여래 정법염경운
救四天下人命 不如一食頃 端心正意
구사천하인명 불여일식경 단심정의

고 뜻을 바르게 가지는 것만 못하다.' 했고, 또 〈기신론〉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종자를 이어가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예언을 내릴 것이다.

假使有人
가사유인
能化三千大天世界滿中衆生
능화삼천대천세계만중중생
令行十善 不如有人 於一食頃
영행십선 불여유인 어일식경
正思此法 過前功德 不可爲喩
정사차법 과전공덕 불가위유
是知依此修行 諸善功德 不可勝言
시지의차수행 제선공덕 불가승언
若不安禪靜慮 業識茫茫 無本可據
약불안선정려 업식망망 무본가거
臨命終時 風化逼迫 四大離散
임명종시 풍화핍박 사대이산
心狂熱悶 顚倒亂見 上無衡天之計
심광열민 전도난견 상무충천지계

선정은 능히 번뇌의 화살 막으니
지혜 지키는 창고요 공덕의 복밭

起信論云 若人聞是法已 不生怯弱
기신론운 약인문시법이 불생겁약
當知是人 定紹佛種
당지시인 정소불종
必爲諸佛之所授記
필위제불지소수기

下無入地之謀 惶惶恐怖 失所依憑
하무입지지모 장황공포 실소의빙
形骸蘸索 猶如蟬蛻
형해소색 유여선세
迷途綿邈 孤魂獨逝
미도면막 고혼독거

선정과 지혜의 이름은 다르나 요는 본인의 신심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데 있다. 〈지도론〉에 '세상의 하찮은 일도 전념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룰 수 없는데 하물며 위없는 도를 배우면서 선정과 지혜에 힘쓰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고 그 게송에 「선정은 금강의 갑옷이라 능히 번뇌의 화살을 막고, 선정은 지혜를 지키는 창고라서 온갖 공덕의 복밭이로다. 분주한 티끌이 하늘 해를 덮으면 큰비가 그것을 씻어주고, 망상의 바람이 마음을 흔뜨리면 선정이 그것을 없애준다」하였고, 〈대집경〉에는 '선정에 든 사람이 나의 참된 아들이다' 하고 그 게송에 「한적하고 고요한 무위(無爲)의 부처 경계여, 거기에서 깨끗한 지혜를 얻는다. 만일 선정에 머무는 이를 비방하면 여래를 비방함이다」했고, 〈정법염경〉에는 '온 세계의 인명을 구제해도 잠시 마음을 단정히 하

가령 어떤 이가 온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여 열 가지 선행을 하게 해도 잠깐 이 법을 올바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하며, 이는 앞에 말한 사람의 공덕보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였으니 이로써 선정에 의해 수행하면 선(善)의 공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선수행을 잘하지 못하면 업식이 아득하여 의지할 근본이 없다. 임종시에는 병고에 시달리고 육신이 무너질 때는 마음은 미친 듯이 극도의 괴로움에 휩싸이고 소견은 뒤바뀌고 어지러워 하늘에 오를 꾀도 없고 땅에 들어갈 방도도 없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두려움에 질려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형색은 매미 껍질처럼 쓸쓸해지고, 아득하고 망망한 길을 외로운 혼이 홀로 갈 수밖에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철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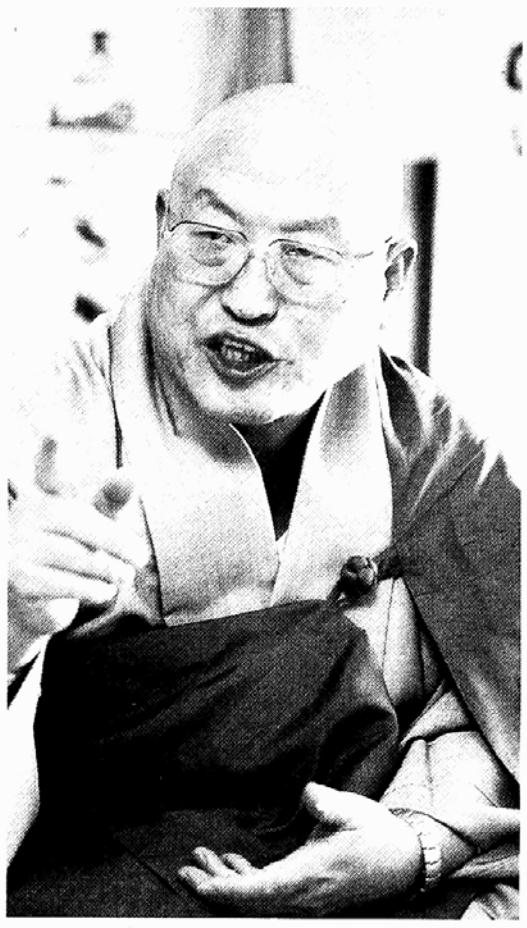
성전암 주석

앎과 함의 일체화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마저도 철학적 이해에 머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理)와 사(事), 선(禪)과 교(敎),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사(事)는 이(理)를 전제하지 않고 '이' 또한 '사'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부처는 점점 더 저 높은 곳으로 올라만 가고.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핵심 교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긴다. 특히 불교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번뜩이는 직관으로 우주와 삶의 본질을 통찰했다. 도(道)가 일상을 떠나 있지 않음을 일깨움으로써 인간의 삶을 한껏 고양시킨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행이자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일까? 철웅 스님께 여쭈어 보았다.

'내가 부처' 스스로 깨달아야죠



· 1933년 경남 양산 生
· 58년 동화사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9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9~72년 통도사 극락암 · 동화사 금당에서 수선
· 72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팔공산 성전암에 주석

—먼저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하는 해묵은 질문을 말머리로 삼아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불교라는 종교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철학적 입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불교를 철학화· 등치시키는 것은 종교의 생명이라 할 실천력을 거세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할 때, '종(宗)' 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종'은 뿌립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은 우주와 사물의 실상, 즉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에서 철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철리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예요. 그러나 이성과 오관으로 따지는 철학은 인간의 이율배반 의식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 뿌리를 찾는 일, 다시 말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로서의 종교는 다른 차원이예요.

본질 자체를 이치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철학이라면, 불교는 그것을 체득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 자체를 의인화하면 곧 부처인 것이지요. 따라서 불교란 부처를 찾는 종교이고, 부처를 찾는 일이란 자신의 마음을 아는 일인데, 문제는 이 마음 속에 든 이율배반 의식, 이게 병이예요.

그런데 이 이율배반 의식을 싹 비워버리면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실상을 딱 깨치는 거지요. 그럼 깨쳤다는 것은 뭐냐? '도(道)'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실상 즉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와 사물의 본질은 바로 '불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마음 즉 '내 마음의 부처' 혹은 도(道)가 그것이지요.

—결국 불성의 현현이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마음씀이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성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가 유심조(一切有心造)라 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부처'라는 자각이지요. 그럼 인생관도 바뀝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하늘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지요. 자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게 도예요.

그 다음, 부정적인 사고란 뭐냐.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는 등의 분별심이예요. 이걸 서양 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마음 속에는 선 · 악이라는 두 가지의 이율배반 의식이 딱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고 눈만 뜨면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를 시비하게 되는 겁니다.

시비 가운데 일으키는 감정이 뭐예요. 칠정입니다. 모양도 냄새도 없는 이 마음이, 격하게 노하고 분별없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장이 상하게 되지요.

본으로 삼아야 할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 덕 · 체가 그것입니다. 지혜와 몸과 용기를 단련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서양식 도덕률이나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주의니 뭐니 하면서 까불 일이 아니지요. 유물론적 사고라는 것도 인간의 의식에 기초한 이원론적 철학의 결과 아니예요?

거듭 강조하건대, 긍정적인 사고란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하대지 초목총림이 부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부처가 부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다 부처인 것이지요. 전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걸 자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리 되면 지혜가 용틀임하면서, 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대긍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또 분별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율배반 의식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없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와 남을 갈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니예요.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란 없다!' 이거예요.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와 은인이 있었는데, 오늘 턱 본래 마음을 보고 나니까 전부가 내몸이예요. 선 · 악이라는 이율배반 의식이 싹 사라진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처의 마음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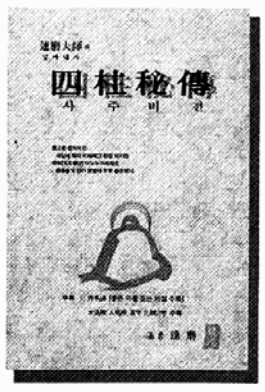
사람 인(人) 자에 벌써 선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원론이예요. 하지만 불교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예요. 섣부르게 불교가 휴머니즘이다 하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친 소립니다. 지금 지구의 몰골을 보세요. 인간주의 합리주의 운운 하면서 다 뒤집어 놨잖아요.

본교에서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신이고 부처예요.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원론적 세계관에 투철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처세론 혹은 구제원리로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금강경〉의 '무득무설분(無得無說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사주비전



정가 : 35,000 원
著者 : 達磨

종교든 문학이든
사상에 따라 이해되고 편중 되지만
역학(天文學)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이 없어 만물에 두루 평등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天地의 공간 속에 피어난 生命의 불꽃이리라
불꽃은 나무를 만나면 활활 잘 탈수도 있고
火氣(불기운)가 강하면
金(쇠)도 녹이고 반면 물을 만나면 꺼질 것이리라.
이러한 生必연법을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만나 시대의 영웅이 되고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나 권좌에 오르고 朴正熙가 金鍾泌, 朴種圭를 만나 대통령이 되어 지는 生必연법은 사주비전에서 명쾌하게 찾을 수 있다.
인연과 사주, 인생에 있어서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인연은 이름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고 한다. 불교의 인연법은 워낙 현묘한 것이라서 인간의 흥망은 물론 한 국가의 성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역(易)이란 바로 그러한 인연법을 다스리는 미래학(天文學)이다. 사주비전은 시간과 운명, 음양오행을 포함한 우주의 기운, 인간의 인연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작명법에 이르기 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펴놓은 책이다.

목차소개
1. 천지창조 2. 역의시원 3. 시간과 운명
4. 우주의 기운 5. 사주 분석과 해석 6. 인연법 7. 작명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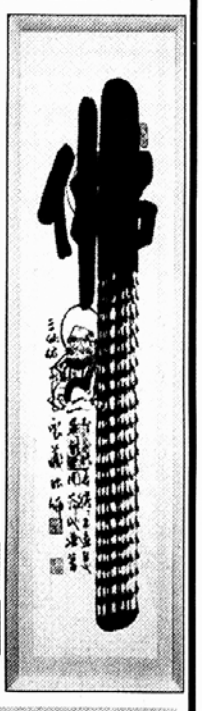
◈ 부 록 :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 본 책의 판매대금은 달마사 절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 주문처 : 부산, 영호남 (051-328-5551 · 312-4804 · 506-4804)
송금처 : 부산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중소기업은행
▶ 주문처 : 서울 경기 중부 지방은 (02-999-5551 999-4804)
송금처 : 서울 012-027395-01-017 예금주 달마사 중소기업은행
대표전화 051-301-4949
011-301-4949
F A X 051-315-4949

침술 무료 치료 안내
▮50견(견비통, 어깨통증)
▮경추 디스크(목 관절염)
▮요통 허리디스크
▮좌골 신경통
▮무릅 관절염
▮만성 두통
▮위장병(위염, 위산과다, 위궤양)
▮두통
▮아토피성 피부병
▮불임증
▮협심증
영재 한의원 02-766-5510
종로6가 백제약국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다가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옴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원주 덕화산 운장사 달마선원